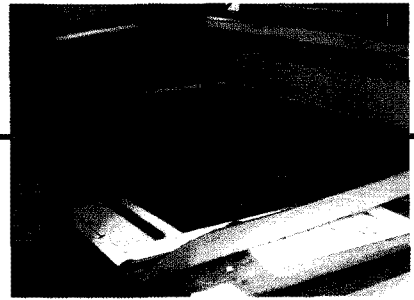


화성메이저의 '피니토'

망점이 훨씬 잘 살고 퍼지는 현상이 줄어



'피니토'에 바를 장착 중인 모습



화성메이저(주)(대표이사 최충순)가 최근 공급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패키징 제품인 '피니토'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태리 프린트그래프사에서 제공하는 피니토는 인쇄 블랭킷용 범용 언더패킹으로서 언더패킹 블랭킷의 기술적 상업적 개념을 새롭게 세운 혁신적인 제품으로 전세계 특허제품이다. PES 필름에 다양한 두께로 캘린더링 되어 있는 변형 TPU(씨모플라스틱 폴리우레탄)로 구성된 피니토는 기계충격 흡수가 뛰어나며 인쇄품질을 크게 향상시킨다. 피니토는 기존 언더패킹 블랭킷과 패키지를 대체하여 종래의 언더패킹이 가진 보관 및 관리 문제를 깔끔히 해결해준다. 피니토는 기존의 패키지와 비교해 수명이 길어 평균 약 6개월까지 새로 교체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압축변화에 대한 내성과 복원성이 최적이며, 기계충격 내성이 뛰어나다. 특히 뛰어난 탄성 기억으로 인쇄용지 변경이나 사이즈 변경에도 언더패킹을 교체해 줄 필요가 없다. 피니토는 망

점 및 민판재현성을 기존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점이 있으며, 패키지를 사용하던 기존 조건과 똑같은 환경에서 패키징만 피니토로 바꿔 인쇄를 하면 즉시 인쇄품질이 개선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화성프린원 고모리 슈퍼리슨 40 기계에서 피니토를 사용 중인 최정남 기장은 "기존의 종이패킹에서 피니토 패키징으로 바꾼 후 우선 망점이 훨씬 잘 살고 망점 퍼지는 현상이 줄어들었다. 또한 블랭킷이 부분적으로 죽는 현상도 없어졌다. 종이가 구겨져 들어가거나 해서 블랭킷이 부분적으로 죽게 되면 책자 인쇄 시 수많은 글자 중에 한 두 개가 인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를 일일이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피니토를 사용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화성프린원에서 피니토를 고려한 이유 중 하나가 고질적인 문제인 절수자국이었다. 4×6 반절을 찍다 보면 종이 가장자리 부분의 블랭킷 표면에 지분이 쌓여 블랭킷을 파먹는 현상이 발생하고, 예전에는 이 문제가 심해서 다른 사이즈를 다시 인쇄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피니토의 탁월한 완충작용 덕분에 블랭킷상에 진한 색의 종이 흔적만 남고 표면이 파이지 않아 다시 인쇄할 수 있게 되었다.

피니토를 사용하면서 핀(레지스터)이 더 잘 맞는 효과도 얻고 있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할 때 블랭킷통과 판통이 서로 밀착되는 순간 핀이 빠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피니토를 사용하면서 이 문제도 해결되어 예전보다 핀이 잘 맞는다고 한다. 피니토는 종이패킹처럼 자주 교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종이패킹을 사용할 때는 패키징교체를 위해 기계를 한 달에 60번 정도 멈춰야 했다. 한 유닛 당 패키징교체 시간이 10분 정도 걸리고 5색을 다 바꾸면 50분, 즉 패키징을 교체할 때마다 10,000~15,000장 인쇄 가능한 시간을 허비하는 셈이었는데, 피니토를 사용하면서 시간 낭비할 일도 없고 작업이 한결 편해졌다고 한다. Ⓞ

임남숙 차장sang@print.or.kr